1. 꽃다지가 태어나기까지(88년부터 92년까지)

87년 7,8,9월 전국을 뒤흔든 역사적인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운동의 중심축이 학생과 지식인에서 노동자로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들을 인식하였고,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부를 자신들의 노래를 원했다. 이 속에서 노동자노래단(이하 노노단)과 삶의 노래 예울림(이하 예울림)이라는 두 단체가 창립되었다.

노노단은 구로지역을 거점으로 김호철, 김애영,신 천미예 등을 중심으로 하여, 88년 하반기에 1집인 [총파업가]를 제작하면서 창작단의 성격으로 출발. 김호철은 구로지역에서 여러 노동조합 노래패를 결성하여 파업과 집회에서 문선활동을 하면서 연대사업으로 구로노래패연합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89년 상반기에 2집 [전노협진군가]를 민족음악연구회의와 예울림의 가수들과 함께 제작한다. 그 당시까지는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공장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래들도 전자, 정밀 사업장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의 정서를 담은 것들이 많았다.

창작단의 성격으로 출발한 노노단은 89년 하반기에 3집인 [노동자 행진곡]을 제작, 발매하면서 김애영, 김호철을 중심으로 류금신, 김성민, 이정열, 신양묘 등과 함께 연행, 창작 단체로 새롭게 구성한다. 4집 [민중연대 전선으로]에서는 윤민석도 함께 결합한다.

반면 예울림은 대학노래패 출신인 안종호, 조민하, 유인혁, 이은진 등이 모여 노래활동을 모색하던 중, 89년 3월 최루탄 부상자협의회 주최의 "4,5,6그리고 7,8"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정식 연행단체로 발족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예울림 1집인 [지리산, 너 지리산이여]를 발매하고, 그해 6월, 6.10항쟁기념공연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연대백주년 기념관에서 올린 후 공연실황음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발매한다. 노동자들에게 검증된 노래들을 위주로 공연하는 공연단 성격이 강했던 예울림은 90년대초 2집인 [출정전야]를 발표하며 공연, 창작단으로 변모한다.

두 단체는 각기 노동현장에 파업지원과 집회 등에 초청되어 노래뿐만 아니라 공동체놀이, 노래율동 함께 하기 등 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당시에는 한달에 서른번도 넘는 공연을 해야 할만큼 현장의 활동이 왕성했고 그만큼 노동가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서울지역노동문화단체협의회(이하 서노문협)에 가입을 하면서 89년 10월 "전노협 건설을 위한 노래판굿 꽃다지"의 음악을 맡아 공동

실천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91년 열사 정국 때에도 거리에서 매일 함께 노래하고 울고 웃고 하였다.

90년 1월 22일 전국 노동운동의 구심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이 결성되던 그 역사적인 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야합이 이루어지고 총자본의 물리적 탄압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졌다. 91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싸움 이후 대중운동은 상대적으로 다소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창작곡들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지친 동지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노래들이 많았다. <민들레처럼>,<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희망의 노래><골리앗의 그림자> 등이 그때 나온 노래들이다.

노노단과 예울림은 범주가 확장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상공간에서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노래로, 또한 노동자적 대중성과 전문성이 놓은 음악으로 다가가기 위해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논의 과정에서 91년 12월 노노단, 예울림 합동공연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땅, 아름다운 노래(약칭 평평아)" 공연을 중대 대학극장에서 올리게 된다. 이 때 <단결투쟁가>의 대합창 편성이 신양묘의 편곡으로 발표된다. 가수 15명, 반주반 7명으로 총 22명이 무대에 선 공연이었다.
이 당시의 가수들이 김애영, 박영기, 김성민, 김태언, 장희경, 장은경, 엄명석, 심희수, 정미숙(이상 노노단) 서기상, 김세라, 박상희, 김현덕, 이경민, 김희정(이상 예울림) 등이고 반주반으로 드럼에 백연구, 베이스에 박필우, 기타에 유인혁, 건반에 신양묘, 정혜원, 전향미, 김명숙이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이외에도 연출과 작곡을 담당한 조민하, 대중문예사업을 담당하는 최준, 박미영, 기획을 담당했던 이은진, 김경진, 최민기 등이 꽃다지 창립 멤버들이다.

2. 꽃다지를 창립하다! (꽃다지 원년 1992년)

음악적 성취도가 높았던 "평평아" 공연 후 통합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1992년 3월 1일 꽃다지를 창립한다. 창립당시 총 회원은 33명. 김애영을 초대대표로, 운영위원회체계로 조직운영을 하고, 회원을 활동수준과 역할에 따라, 정회원, 단원, 지도위원 등으로 구분을 하였다. 부서로는 창작과 공연을 담당하는 연행창작부, 그 산하에 가창반, 연주반, 창작반이 있었고, 교육부와 대중문예사업부, 그리고 기획부를 두어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였다.

통합, 창립 후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해 92년 8월초 <민들레처럼><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고귀한 생명의 손기로><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등이 수록된 1집 음반(비합법)을 제작하고, 9월 음반 발매 기념공연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좌표 1992"라는 제목으로 올린다. 이 공연의 형식은 영상과 춤과 연극이 결합된 집체극 형식의 공연이었다. 관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 연장공연까지 하며 1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게 된 역사를 남긴다.

3. 시련의 고개 넘어...(92년 대선부터 93년까지)

92년 겨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대선의 패배감, 조직의 분열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긴 겨울을 무기력하게 지내고나서 93년초 다시 총회를 통해 조직 정비를 해야 했다. 유인혁을 대표로 하여 내부를 추스리고,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런 심정을 노래로 만들어 비합법 2집을 제작하고 93년 9월에 음반발매기념 공연 “동지”를 올린다. 이 때 나온 노래가 <전화카드 한 장><바위처럼><창살 아래 사랑아><통일이 그리워><꽃다지3> 등이다.

4.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 노동가요의 지평을 넓히며...(93년 가을부터 94년 봄까지)

93년초 노동자문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던 연합체, 협의체 조직들이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예술운동의 중심축이 각 장르 단체들로 이동한다. 꽃다지 역시 부분적인 매니저 개념 도입과 기획실 강화를 통해 음악단체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해나간다.
그리고 조합조직이나 집회에서만 노동가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노동가요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꽃다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꽃사람')을 결성한다. '꽃사람'은 94년 5월 1일을 창립일로 하고, 월간 꽃사람 창간호를 발간한다. 그리고 93년 12월말에는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한마당'에서 콘서트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를 연다. 편지와 시 낭송,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양식을 조민하의 섬세한 연출로 만들어낸다. 그 후로 꽃다지는 콘서트에서 이 형식을 한동안 고수한다.

음악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가요로는 최초의 합법음반을 제작한다. 이것은 노동가요가 더 이상 집회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닌 삶의 현장 곳곳에서 밀접하게 함께 하는 것임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타 계층을 이미 검증된 건강한 노동가요의 정서로 견인하며, 공식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가요에서 명곡이라고 꼽힐 만한 노래들을 엄선하였다. 그러나 공윤은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가사 내용을 문제 삼아 반려처리를 해버렸다. 꽃다지는 이 사실을 언론에 널리 알리고, 불법으로 음반을 제작하고 공윤 철폐 투쟁을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다. 그 당시는 정태춘 씨가 헌법재판소에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으나 꽃다지는 그동안 계속 심의를 받지않고 음반을 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윤에서 심의를 내지 못할 듯한 노동가요들을 심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심의규정자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끝내 모든 노래를 한글자의 수정도 없이 모두 통과시켰고, 94년 5월 31일 시청앞 마당세실극장에서 합법음반 발매기념콘서트 "민들레처럼'을 올리면서 문화관련 제도개선투쟁은 1단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5. 창작의 어려움에 봉착하다.(94년 가을에서 95년까지)

94년초의 성공적인 투쟁과 이후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꽃다지 성원들은 생활고에 무척 찌들어 있었다. 음반과 콘서트를 하며 진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창작자들의 창작의 문제에 있어서도 난관에 봉착한다. 이때 멤버들이 대거 정리하면서 또 한차례의 조직 개편을 맞이하게 된다. 새 대표인 이은진과 기획실이 집단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가창팀과 연주팀, 두팀으로 연행단을 구성하는 비교적 간편한 체계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인원보강을 하였다.

94년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판굿 꽃다지 공연과 95년 3월 연대노천극장의 노래판굿 꽃다지 재공연, 그리고 95년 4월 말 노동가요 공식음반 발매와 민주노총 출범을 기념하는 꽃다지 콘서트 "한 걸음씩"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펼쳤으나 95년 유인혁을 마지막으로 창작군단이 없어지자 연행자 스스로 창작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간의 꽃다지 음악을 정리하고 또 재평가하고 새로운 음악장르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공동작업을 1년간 진행한 성과로 95년 12월 신촌 창무포스트 극장에서 17일간의 장기공연을 하게 된다. 조민하가 재결합을 하여 연출을 맡고, 1년간의 호흡을 바탕으로 한 이 공연은 무척 재미있는 공연이다는 평을 듣게 된다.

6. 누가 뭐래도～(96년)

꽃다지는 음악적 지향과 생산력의 문제, 재생산구조의 문제, 교육 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끝에 96년부터는 솔로가수도 배출하고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써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96년 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꽃다지는 마치 80년대로 돌아간 듯 탑골 공원 앞에서 50일간 "국가보안법 철폐! 구속문화예술인 석방! 완전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 쟁취!" 라는 구호를 내걸고 차가운 거리에서 선전공연을 했고, 밤에는 민예총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다. 힘겹고도 눈물겨운 성원들의 투쟁의 결과로 대표는 5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간의 거리공연을 정리하는 콘서트를 96년 4월, 마당세실극장에서 발디딜 틈도 없이 들어찬 관객들과 함께 하였다. 96년에는 일본 진출도 이루어져 한국노동가요를 일본에 널리 알리게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일본 공연을 통해 일본에 '꽃다지 응원단'이 생기고 꽃다지 응원단을 중심으로 '노래노카이'라는 한국 민중가요를 부르는 노래패가 생기기까지 한다.

7. 우리는 지금보다 강하게...(97년부터 지금까지)

96년말 콘서트 와중에 터진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에 집중하며 낮에는 집회 밤에는 콘서트를 하며 97년을 맞이한다. 3년만에 합법 2집 음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발매하고, 음반발매기념 콘서트를 하였다. 97년 12월, 대선 정국에서 노동가요계 최초의 싱글음반 "세상을 바꾸자"를 발표하고 대선투쟁에 결합하였다.
총파업과 대선을 치르며 정신없이 바쁘게 97년을 보내고 98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의 지리한 조직 개편 논의는 시작되었고, 98년 11월에 새로운 체계로 정리하였다. 가창팀, 연주팀, 기획실로 구성되었던 팀체계와 대표제와 직급제를 폐지하고 업무담당 체계로 바꾸고 9명이라는 단촐한 식구가 남았다.

98년 체계정리로 남은 9명은 1년간의 준비 끝에 99년 가을에 합법3집음반 "진주"를 발매하였다. 3집 음반에서는 그간의 꽃다지 사운드와는 구별되는 선 굵고 단순한 모던락 사운드를 도입하게 된다.

이후 꽃다지 역사상 가장 단촐한 식구들이 남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더욱 단단한 결속력으로 지속적인 음악작업을 한 결과, 2000년 가을에 두번째 싱글인 통일테마음반 "오라"를, 2001년 봄에는 세번째 싱글음반 "반격"을 발표하고 기획자와 가수를 보강한다.

2002년에는 통합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노동가요 15년, 꽃다지 10년'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10주년 사업을 펼치게 된다. 특히 연세대 대강당에서 이틀간 진행한 10주년 기념 콘서트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관객들이 함께 하며 앞으로의 꽃다지를 성원하였다.

2003년 대표체계를 재도입하여 민정연이 새롭게 대표가 되고 기획자들을 보강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모색한다. 2004년에는 앞으로의 꽃다지의 활동과 음악을 논의하며 음악감독으로 정윤경을 영입하고 2004년 12월 콘서트, 2005년 5월 봄 콘서트를 진행하며 서서히 새로운 음악색깔을 선보인다. 기존 꽃다지의 음악이 공동체적 시각에서 다함께 부르는 직설적이고 힘찬 노래 중심이었던 비해, 이전보다 힘을 빼고 느슨하게 은유적인 화법의 노래들이 증가한다. <이 길의 전부>, <멀리 가는 물>, <노래의 꿈>, <호각>, <점거> 등이 그러한 노래들이다.
2001년 <반격> 음반 이후에는 <노래의 꿈>, <이 얼음같은 세상을 깨고>, <그래 사

랑은>, <돈세상>등을 온라인을 통한 싱글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활동영역 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감소추세인 집회공연 외에 기획 공연을 통해 다양한 대중을 만나고 있다. 새로운 세대와의 진지하고 유쾌한 만남인 학교순회 콘서트 <꽃들에게 희망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점심시간에 진행한 게릴라 콘서트 <공장순회콘서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널리 알리며 문화를 나누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순회 콘서트 <손을 잡아야 해> 등을 활발히 펼치며 음악적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연형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며 MR위주의 공연을 지양하고 가수들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리를 점점 늘리고 있다.
또한 기획, 초청 공연 외에 정기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활발히 새로운 노래들을 창작 발표하고 있다.

현재 꽃다지는 대표 민정연, 음악 감독 정윤경, 가수인 이태수, 조성일, 정혜윤, 홍소영이 새로운 꽃다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100여명의 사람들이 꽃다지를 거쳐갔다.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반면에 가슴 벅찬 일들도 또한 많았다. 지난 19년간 완성형이었던 적은 없는 듯 하다. 더욱 깊고 넓은 소통을 위해 언제나 현재진행형의 음악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속적인 새로운 꽃다지 음악에의 모색은 때론 어설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꽃다지를 지탱하게 한 힘이기도 하다. 2010년 8월 콘서트를 마치면 꽃다지는 지난 5년여간 익숙했던 음악에 무언가 새로운 색깔을 덧칠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음악에 어떤 미래를 보탤 것인지 켜켜이 쌓이는 음악적 시도들을 관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실 바란다.

누가 뭐래도 꽃다지는 꽃다지이다. 그리고 현재 꽃다지를 지키고 또 앞으로 지켜나갈 사람들이 진짜 꽃다지이다. 꽃다지 성원들뿐만 아니라 꽃다지의 씨를 뿌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꽃다지인 것이다. 꽃사람이, 그리고 꽃다지를 아끼는 대중이 없으면 꽃다지는 꽃다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